

미얀마 문화체험과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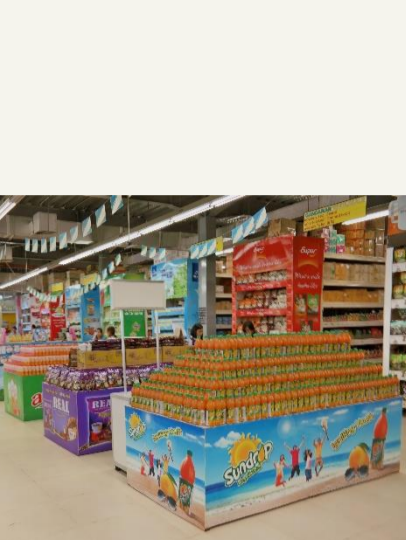


- 팀원 김솔아 [행정 14] 김태훈 [팀장, 사학 14] 김혜진 [불어 불문 13] 정연우 [정치외교 12] 이소경 [사학 14] 이혜리 [불어 불문 13]

- 목차 1. 미얀마의 경제 2. 미얀마의 종교 3. 미얀마의 의식주 4. 미얀마와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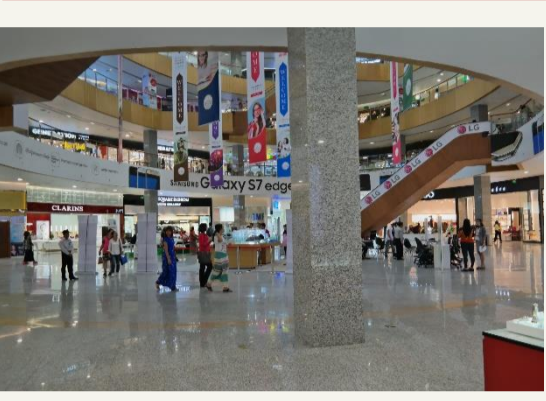
미얀마의 경제

미얀마는 도시화 정도도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낮은 국가인 만큼 향후 5년간 미얀마 건설시장은 10.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미얀마 건설시장의 가치는 지난해 82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135억달러로 급격한 성장의 여운이 계속 된다. 또한 미얀마의 GDP는 2012년 이후 매년 7%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7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얀마 화폐와 마트

양국 현지에 있을 때 방문하였던 대형쇼핑몰 내 커피숍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3,000~4,000원(약 3~4천원)으로 한국에 있는 사촌 브랜드 업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가게 내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손님들과 달리 가게입구 바로 앞에서 "Give me one dollar"를 외치며 구걸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아이러니했다.



미얀마에 있는 백화점



[미얀마의 종교]

미얀마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부른다. 도금된 사원의 지붕은 추수 시의 들판과 잘 초목을 이루어 나라 전체를 황금색으로 만든다. 노란색 법의를 입은 스님들은 온통 황금색으로 물든 거리를 방문하고 눈을 지그시 내려감은 채 걸는다.



미얀마의 종교



[셰다곤 파고다] 셰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불교 유적지로 미얀마 불교의 관습과 전통을 함에 관할할 수 있는 곳이다. Shwegun은 금을 의미하므로 셰다곤 파고다는 금으로 된 다공의 불탑 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몬족(族)이 미얀마에 세운 페구왕조 때인 1453년에 건설되었다. 둘레는 426m, 높이는 100m이다. 기반부는 정사각형이고, 4단 윗부분은 원뿔꼴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형태를 취한다.

미얀마인(人)들의 상징물이자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로, 원래는 금판(金版)이 붙지 않았으나, 1990년대부터 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들에게 금과 기증을 권유하면서 붙이기 시작하였다. 도 미얀마 역대의 왕과 불교도들이 기증한 금으로 일부를 장식하면서 화려해져, 지금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뒤덮인 세계적인 불교유적으로 자리잡았다.

탑 꼭대기에는 73개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총 5,448개의 다이아몬드, 2,317개의 루비와 사파이어, 대형 에메랄드가 박혀 있어 해가 뜨는 아침과 석양 무렵에는 온통 황금 빛으로 반짝인다. 경내 북서쪽에는 무게가 231이 되는 거대한 중(鐘) 마하 간다(Maha Gandha)가 있고, 탑의 기반 부분에는 64개의 작은 불탑이 탑을 에워싸고 있다. 또 불탑을 중심으로 72개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둘러져 있고, 이러한 불탑에는 수많은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다.

[미얀마 불교의 특징] 미얀마의 불교는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미얀마 불교가 소승불교라고 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불교와 대 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해탈을 강조 하는 불교로 이후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다. 소승불교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는데, 여기서 '소승(小乘)'은 작은 수레라는 뜻으로 작은 수레에 혼자서 갈 수 있는, 따라서 소승불교(小乘佛敎)라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해탈을 추구한다.

[시리암 예래 파고다] 한국인들에게 시리암이라고 알려진 이 지역은 '반란' 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원인 예래 파고다는 예는 버마어로 울, 래는 가 문대란 의미로 현지어로 바꾸면 '울 가운데 사원'이라는 뜻이 된다. 양면에서 시간과 거리에 있고 양의 대적적인 사원으로 여겨다. 또는 예래파고다라고 하는데 울 가운데 세워져 있고 있으나 아무리 흥수가 나 도 이 파고다는 울에 잠기지 않는다고 한다



[미얀마 의복]

우리나라의 한복처럼 미얀마에도 전통의상이 있다. 긴 치마와 같은 형태로 '론지'라 불린다. 론지를 입을 때 '인지'라는 상의를 갖춰 입으면 격식을 갖춘 옷차림이 된다. 한국처럼 명절이나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소복으로 많이 입는다. 실제로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도 미얀마 현지인들이 론지를 입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치마의 형태인 옷 밑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입고 있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남자들은 어찌래도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론지를 반바지 형태로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미얀마의 동남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전통 치마를 찾아볼 수 있지만 론지가 훨씬 짧고 일상화 된 곳은 미얀마 뿐 아닐까 싶다. 론지는 미얀마의 더운 날씨와 맞은 모기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맞춤형 옷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상복으로 사랑받는 론지는 미얀마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주는 역사와 전통의 옷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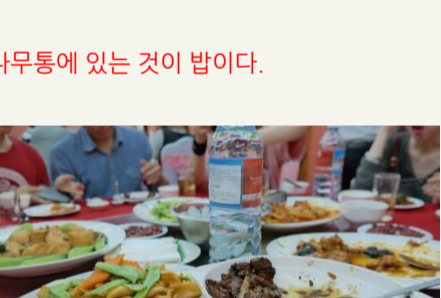
미얀마 전통 옷 '론지'



평소에도 전통 옷을 입는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 음식]

미얀마도 주식은 쌀이다. 국수종류도 많이 있다.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볶음밥 또는 밥에 카레를 곁들여 먹기도 하고, 기름진 볶음오리와 튀김오리를 보면 중국요리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음식문화라 할 수 있다. 미얀마 인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즐리지 않는다. 쇠고기의 경우,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이고, 돼지고기의 경우는 토속신앙인 정령신 "네트(Nat)"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미얀마에는 독특한 식품이 있다. 바로 '옹야'이다.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길가에서 깨끗이 씻긴 잎에 튀겨 올라 팔고 있는 걸 보고, 미얀마 길거리 음식인 줄 알았던 것이 옹야였다. 배를 후추로 입의 입자류를 제거한 다음 석회를 바르고 아미노산을 써서 씹는 것이다. 얼얼히 말하면 씹는 맛이 생기는데 씹는 맛이 다른 것 같은 기호품으로 씹는 장식제나 씹는 1회용 먹는 껌이 가장 잘 어울릴 것이다. 지금도 가정집을 방문하면 손님 접대용으로 공약을 내놓을 정도로 일반적 인 문화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바깥향 조식대에도 옹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 근 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들의 오랜 전통이다.



가볍진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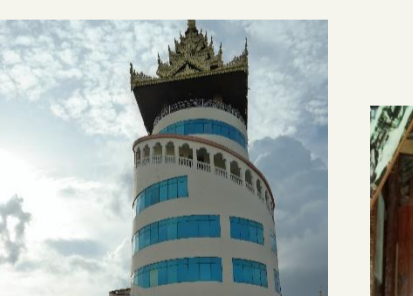
종야

[버마(BURMA)족 전통특색]

미얀마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버마족의 기원은 딥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의 특성상 지면과 떨어져 있다. 아래층은 창고고 또는 가족을 기르는 용도로 사용한다. 원래는, 불교국가답게 집 안에는 불상을 모시는 불단을 두어 공양을 드린다. 동풍을 피해 만들어놓은 수많은 창문이 인상적이다.

[몬(MON)족 전통특색] 몬족은 미얀마 전체 인구의 2%로 버마족에 상당수 동화되었거나 인종의 다른 나라들로 이주하여 소수 종족으로 남게 되었다. 미얀마 남쪽의 주요 부족인 몬족 또한 버마족의 가족과 유사하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특산물인 '옹야'라는 전통이 있는데, 구운 고추를 곁들여 먹는다. 가족 안에는 24시간 눈을 뜨고 집을 지켜준다는데 유래해 정실들이 부여되었다.

[진(CHIN)족 전통특색] 미얀마 북쪽의 산악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진족의 기원은 창문이 없고, 동물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문지방이 높다. 시냇물 주위 하는 집은 송입물에서 여러 짐승들의 머리를 장식해 두고, 외자와 생활 도구도 짐승의 털과 같은 여성 부산물로 만들어 놓았다. 짐승들의 머리는 부와 권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소수민족들이다. 가족의 형태나 구조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다양한 주거 환경] 남쪽으로 크고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미얀마는 소수 민족이 많이 다량한 주거 환경을 보인다. 미얀마는 대나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매(Te)라 불리는 대나무 집이 아주 많다. 지붕에는 발레로 부터 보호를 해주는 아자수 잎이 널리 쓰인다. 대나무와 아자수 잎을 활용해 습하지 않게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가족을 지었다. 생활 도구 또한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특장은 가족의 버마의 지면에 닿아 있지 않은 구조이다. 이는 미얀마 사람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생 동물과 독충을 피하고 습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주거 형태이다.

[미얀마의 민속촌 '내셔널 빌리지'] 미얀마 양쪽에 위치한 '내셔널 빌리지'는 미얀마 여러 소수민족들의 전통가족 및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테마마을이다. 미얀마에는 버마족을 비롯한 130여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내셔널 빌리지에는 8개 소수민족의 주거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민속촌과 같은 곳이다.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마을 답습해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내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을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었다.

1087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내셔널빌리지 전망대'에 오르면 숲의 도시 양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거대한 나무들로 우거진 초목밭의 광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코끼리 조각상이 세워진 건물을 볼 수 있었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를 믿기 때문에 코끼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꿈꾸리로 하얀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꾸고 석가모니를 낳았기 때문이라 한다.

미얀마와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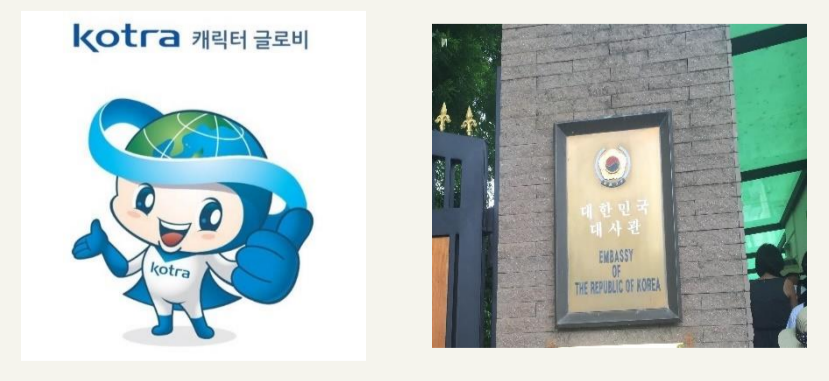
[미얀마 대시간]

미얀마 대시간에 방문해 느낀 미얀마의 모습은 말 그대로 '밝은 미래의 나라'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미얀마의 지리와 환경,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 외교에서는 좀처럼 배울 기회가 적었던 것에 대해 상세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미얀마는 한반도 전체의 3배에 달하는 영토로, 광대한 양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국가이다. 우리나라와는 1975년 5월 외교관계 수립 이래 온갖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대 시간에서는 미얀마 간의 우호협력 관계에 대해 짚고 있으며, 정부 차원 이나 지역, 문화, 학술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밝은 미래의 나라'인 미얀마나 만큼, 정부와 기업들이 미얀마와의 관계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2~30년 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국가라고 한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 중 하나 라고만 생각되고 그리 많이 알지 못했던 미얀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될 것임이었다. 이번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대시간에서의 경험과 강연을 통해 앞으로 미얀마에 대해 더 주목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KOTRA]

이상게도 우리가 KOTRA에 직접 방문할 기회는 없었지만, KOTRA의 미얀마 무역관에서 코산 경영팀에서 우리에게 KOTRA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KOTRA는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무역이 1960년대 수출 증대를 위해 성장해 온 곳이기이다. 경기[중]제타계, 새 기호 전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화를 목적으로 해외와 경쟁 사력을 증진하는 기업으로 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KOTRA에서 실시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글로벌기업협력사업, 미래신성장사업, 무역투자장려지원, 해외유망기업, 지속가능성장사업 등이 있다고 한다. 동남아시아는 특히 국제적 환경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국가이고, 특히 미얀마의 경우 중국의 발전과 함께 광장히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는 국가일 뿐더러 다민족 국가로 소수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고려와 KOTRA의 역할이 필요한 국가라고 한다. KOTRA의 4가지 핵심가치는 < 고객, 도전, 공헌, 글로벌 >이다.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조언과 자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셔서 굉장히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재능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서 우리 역시 새로운 귀감이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kyé zū a myā gyi tin ba tai ! 감사합시다 !